

노인의 이전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

이형하^o

^o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hhlee62@kwu.ac.kr^o

Relations between Older People's Transfer incomes and Life Satisfaction

Lee Hyoung Ha^o

^o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키워드: 이전소득(transfer income), 공적이전(public transfer), 사적이전(private transfer),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I. Introduction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2016)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노인의 이전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1]. OECD(2013)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0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47.2%로 나타났다[2]. 이처럼 경제적 수준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3]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특히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4]. 또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단계로 아직은 노인의 소득안정화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사적이전에 대한 의존정도가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들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개인특성 요인들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갖는 소득안정화 역할(소득불안정성 완화정도)은 매우 대조적인 양태를 보였는데,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경준(2013)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국가·공동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결합구조가 다름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소득안정성은 가구구성에 따라 달랐으며, 사적이전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공적이전은 전체 사회집단 대부분에서 소득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1.2 공적이전과 사적이전과 삶의 만족도 관계

노인들의 주요 경제적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은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함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권문희 등(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적연금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적이전의 경우 대부분 자녀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이전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이전해주는 주체에 기인하는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이 될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소득안정화 효과

금현섭, 백승주(2014)의 연구[2]에 의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이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이전 소득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라 후생증가와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주관적 후생감소가 병행된다는 점이 삶의 만족도에는 공적연금과 구별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6].

III. The Research results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조사 데이터 중 1951년생 이전에 출생한 노인(2016년 기준 만 65세이상) 4,99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성 38.0%, 여성 62.0%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전기노인(65-74세) 45.0%, 후기노인(75세이상) 55.0%이었으며 평균연령은 75.8세로 분석되었다. 중위소득 60%기준으로 일반가구 노인 38.5%, 저소득가구 노인 61.5%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졸업 41.8%, 무학 22.5%, 고등학교졸업 19.5%, 중학교졸업 16.2%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 58.0%, 배우지(미혼, 이혼, 별거 포함) 없음 42.0%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는 나쁨 37.9%, 보통 33.8%, 건강하면 22.7%, 매우나쁨 4.3%, 매우건강 1.3% 순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 소득은 최소 0만원부터 최대 11,250만원, 평균 704.9만원, 사적이전 소득은 최소 0만원부터 최대 7,897만원, 평균 471.4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보통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900	38.0
	여성	3,094	62.0
	계	4,994	100.0
연령대 (평균 75.8세)	65-74세	2,245	45.0
	75세이상	2,749	55.0
	계	4,994	100.0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 60%)	일반	1,921	38.5
	저소득	3,073	61.5
	계	4,994	100.0
학력	무학	1,123	22.5
	초등	2,089	41.8
	중학	809	16.2
	고등이상	973	19.5
	계	4,994	100.0
배우자 유무	없음	2,099	42.0
	있음	2,895	58.0
	계	4,994	100.0
건강상태 (평균 2.79점)	매우나쁨	214	4.3
	나쁨	1,892	37.9
	보통	1,686	33.8
	건강하면	1,135	22.7
	매우건강	67	1.3
계	4,994	100.0	
공적이전 (만원)	최소값=0, 최대값=11,250 평균=704.9/표준편차=789.4		
사적이전 (만원)	최소값=0, 최대값=7,897 평균=471.4/표준편차=551.8		
삶의 만족도	최소값=1, 최대값=5 평균=3.37/표준편차=.514		

상대적 빈곤에 따른 일반가구 노인과 저소득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공적이전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 모두에서 일반가구 노인과 저소득가구 노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2. Public transfer income and Private transfer income

구분	N	평균 (만원)	표준 편차	t값
공적이전	일반	1,921	1,019.2	19.1***
	저소득	3,073	508.5	
사적이전	일반	1,921	587.7	10.1***
	저소득	3,073	398.7	

한편 상대적 빈곤에 따른 공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평균소득(1,019.2만원)이 전체 평균소득(1,606.9만원)의 63.4%,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평균소득(587.7만원)이 전체 평균소득(907.2만원)의 64.8%를 차지하였다(Table 3.).

Table 3. Total of Public-Private transfer income

	N	최소값 (만원)	최대값 (만원)	평균 (만원)	표준 편차
일반	1,921	.00	11,563.0	1,606.9	1,287.2
저소득	3,073	2.00	2,863.0	907.2	393.9

분석대상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 삶의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로는 성별($r=.070, p<.01$), 연령대($r=.075, p>.01$), 상대적 빈곤($r=.240, p<.01$), 교육수준($r=.169, p<.01$), 배우자 유무($r=.154, p<.01$), 건강상태($r=.432, p<.01$), 공적이전($r=.149, p<.01$), 사적이전($r=.083, p<.01$)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와 공적이전 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1. 성별	2. 연령대	3. 상대적빈곤	4. 교육수준	5. 배우자유무	6. 건강상태	7. 공적이전	8. 사적이전	9. 삶의만족도
1	1								
2	.009	1							
3	.121**	.201**	1						
4	-.402**	-.195**	-.268**	1					
5	-.398**	-.199**	-.175**	.295**	1				
6	-.106**	-.189**	-.137**	.171**	.113**	1			
7	-.115**	-.098**	-.315**	.303**	.220**	.035*	1		
8	-.014	.081**	-.167**	.089**	.107**	-.061**	-.091**	1	
9	-.070**	-.075**	-.240**	.169**	.154**	.432**	.149**	.083**	1

한편, 노인의 상대적 빈곤에 따른 일반가구 노인과 저소득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첫째, 일반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상태(B=.376, p<.001), 공적이전 소득(B=.127, p<.001), 교육수준(B=.082, p<.01), 배우자 유무 (B=.057, p<.05)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변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18.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둘째, 저소득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상태(B=.439, p<.001), 사적이전 소득(B=.150, p<.001), 배우자 유무 (B=.086, p<.001), 성별(B=.054, p<.01), 연령대(B=.053, p<.01)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변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21.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일반			저소득		
	B	B	t	B	B	t
(상수)	2.613		31.5***	2.225		29.3***
성별	.044	.047	1.8	.060	.054	2.8**
연령대	.014	.015	.6	.056	.053	3.0**
교육수준	.027	.082	3.2**	-.004	-.008	-.4
배우자유무	.059	.057	2.3*	.089	.086	4.4***
건강상태	.204	.376	16.7***	.268	.439	26.1***
공적이전	.001	.127	5.3***	.001	-.003	-.1
사적이전	.001	.029	1.315	.000	.150	8.5***
	F=56.180*** R2=.180			F=114.854*** R2=.215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공적이전 소득은 최소 0만원부터 최대 11,250만원, 평균 704.9만원, 사적이전 소득은 최소 0만원부터 최대 7,897만원, 평균 471.4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보통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상대적 빈곤에 따른 공사이전 소득의 합은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전체 평균소득 1,606.9만원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전체 평균소득 907.2만원으로 일반가구의 노인이 평균 699.7만원 더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일반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상태(B=.376, p<.001), 공적이전 소득(B=.127, p<.001), 교육수준(B=.082, p<.01), 배우자 유무 (B=.057, p<.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상태(B=.439, p<.001), 사적이전 소득(B=.150, p<.001), 배우자 유무 (B=.086, p<.001), 성별(B=.054, p<.01), 연령대(B=.053, p<.01)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음”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홍경준(2003)의 선례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적이전 소득은 저소득계층에게 소득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Korea Welfare Study The 11(2016), 2016.
- [2] Hskim, and sjback, “Public Pension, Private Transfersm and Subjective Well-Being: A Focus on the Role of Income Instability Reduc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52, No. 1, pp. 145-175, 2014.
- [3] Bowling, A., Banister, D., Sutton, S., Evans, O., and Windsor, J., “A multidimensional model of the quality of lofe in older age,” Aging & Mental Health, Vol. 6, pp. 355-371, 2002.

- [4] Dbkim, eypark, and sukim, “The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by the Asset Types: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Economic Activit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6, pp. 471-494, 2009.
- [5] Kzhong, “Family, State, and Community Sources of Income Stability,” Korean Journal Social Welfare, Vol. 54, pp. 321-345, 2003.
- [6] Mhkwon, jhlee, and khkwon, “Life Satisfaction and affecting Factors between Public Pensio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 3rd National Geriatric Security Panel Conference Document, pp. 33-59, 2011.